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관광특구는 관광사업체들의 집적을 통해 쇼핑, 위락, 숙박 등 다양한 관광 소비환경을 제공하는 특화지구이다. 본 연구는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의 통합도와 통과도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형 관광특구의 공간구조 속성을 분석하였으며,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와 비교하여 관광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광특구 내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보행 접근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관광 편의성 개선이 필요한 취약지역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수원화성 관광특구이다.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전체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화성 성곽 내부지역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나 공간 활성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화성행궁’ 주변 도로는 통과도가 높게 나타나 차량 통행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예측되었다. 도보 10분 거리를 임계반경으로 설정하고, 통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전통시장 지역과 ‘행리단길’ 주변의 보행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통과도는 수원화성 4대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보행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지점의 통합도는 ‘팔달문’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보행 집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팔달공원’은 통과도가 다른 관광지에 비해 낮게 나타나 보행 유입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관광특구 내 관광시설의 통합도는 상가시설이 가장 높아 보행 접근성이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광안내시설은 통합도가 가장 낮아 보행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시설의 보행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관광소비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조건이므로,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설배치가 요구된다. 반면 관광안내시설의 낮은 접근성은 관광정보 제공 측면에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관광안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관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2019년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의 경우 연령대별로 50대(21.7%)와 60대 이상(18.7%)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대별로는 14시~18시(26.8%), 11시~14시(19.8%) 순으로 높았으나 21시~24시는 가장 낮게 나타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0.7%로 내국인 관광객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중국 관광객(57.3%)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 접근성 개선은 관광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광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이는 관광객의 보행특성을 토대로 최적의 시설배치와 차별화된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관광특구의 공간구조를 관광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場)으로서 인식하고, 보행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